

선원 안전 교육의 제도 보완에 대한 고찰 - 해기 능력의 검증 기준 설립 -

한세현* · 김기선*** · 조장원**

*, **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A consideration of system for seafarer safety training - An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standard on STCW competence

Se-Hyun HAN* · Ki-Sun KIM*** · Jang-Won CHO**

*, **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

핵심용어 : 선원 안전 교육, 해기 능력, STCW 교육, 선원법 교육, STCW competence

Key Words : seafarer safety training, standard of competence, STCW training, the Seamen Law, STCW competence

1. 서론 - 연구의 배경

(1) 선원 안전 교육의 강화는 시대적 요구

- 1) 국제적 요구 : STCW 2010 마닐라 개정
- 2) 국내적 요구 : 세월 호 사고 이후 선원법 개정

(2) 해외 해사(STCW)교육기관에서도 현직선원 안전(재)교육은 중요한 이슈 : 주요 선진국들은 2012년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(재)교육 준비/시행



STCW updating training



The Manila Amendments to the STCW Convention (STCW 2010) bring about a number of changes.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mendments is the requirement for all seafarers to update some elements of the mandatory STCW safety training.

From 1 January 2017

"If you are serving on board ship and are qual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you must, as of the 1 January 2017,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completing the training course or updating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"

영국 Warsash maritime academy의 홍보 사례

2. 본론 - (2) 해결 방안 고민

1) 해외 선진국의 사례 Study (미국, 영국)

가) 미국 : [46 CFR 11.302 and 12.602] 통해 실습 이수율 요건으로 명기.

* USCG's Navigation and Vessel Inspection Circular No. 08-14

(실습 내용과 통과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명기)

나) 영국 : MCA. MSN 1865 (M) - Seafarer Training and Certification Guidance

2) 미국과 영국의 안전(재)교육 방침

	교육 목적	검증 도구	검증 기준
현직 선원 재교육 (안전 분야)	해기능력 검증	실습 평가	명료한 기준이 확립 및 고시됨.
	학습 및 이수		

2. 본론 - (1) 현실적 문제점

2) 교육생 연령별 통계 분석

- 가)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다수임.
- 나) 선원의 정년이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.
- 다) 인구 고령화, 임금수준 및 노동 시장 구조 등의 이유로, 향후에도 이러한 장년층 이상의 교육생 분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.

3) 교육생 고령화에 따른 안전 교육의 현실적 문제점

- 가) 실습 훈련 수행의 신체적, 체력적 부담 (해상 및 소화 훈련)



3. 결론

1) 선종별 해결 방안 (현실적 로드맵)

선종 구분	가) 선원 훈련	나) 고령화 연령	다) 사고 예방	라) 수명 연장	해기능력 검증 기준 적용
국제선 : 상선, 여객선, 어선 등 모든 선박	상	중	상	상	선원 연령과 체력 수준 감안하여 중분히 현재도 적용 가능함. (STCW 협약의 준수와 인명 안전을 위해 신속 적용 필요)
국내선 : 여객선, 위험물운반선	중	상	중	중	국제선에 비해 연령대가 높음(퇴직 후 재취업). 그러나, 사고 발생시 그 피해(인명, 재산)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선원이 안전분야의 해기능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당위성이 높음. (단기적인 기간 내에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음)
상기 외 선박 : 국내선 중 일반화물선, 연안어선, 유선 및 도선, Tug, 스커너(정기간의 출발/계도 및 현장 외견 수업을 통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선행적으로 확산시켜야 함. 안전 의식 확산과 필요성을 확인한 뒤에 순차적 적용 검토)	하	상	중	하	인명/재화의 안전을 위해 검증 기준을 도입할 당위성이 있음. 그러나, 현실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급격한 제도 도입 시 파급효과 예상됨.

* First Author : hsh@seaman.or.kr

† Corresponding Author : kisun.kim@seaman.or.kr